

聯關는 매우 直接的이고도 강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註一、國立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

二、濱田耕作 赤峯紅山後

梁思永 熱河在不干爾林西双井赤峯等處所采集之新石器時石器古陶片

呂遵諤 內蒙赤峯紅山考古調查報告

三、有光教一 南朝鮮土着文化의 考古學的考察

金元竜 金海茂溪里支石墓의 出土品

朴敬源 昌原郡鎮東面城門里支石墓調查畧報告

國立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

四、有光教一 朝鮮石器時代之 すりうす

五、有光教一 上揭論文

金元竜 韓國考古學概論

國立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

六、有光教一 上揭論文

七、Hontels 라는 變成岩으로 매우 堅緻한 돌이다. 八公山附近 花崗岩의 貫入

接觸部에서 分布한다. 이것은 慶南地方까지 फै쳐있다 한다.

八、橫山將三郎 釜山府絶影島東三洞貝塚報告

九、金載元 震檀學會 韓國史古代篇

〇一、有光教一 前掲 すりうす

一一、梁思永 前掲 熱河報告書

一二、王亞洲 長春附近發現的石制農業工具

一三、金元竜 金海茂溪里 支石墓出土品

其外 參考文獻 省略

## 麗初碑身側面

### 雙龍高彫에 對하여

姜 仁 求

#### 一、序 言

彫刻史的으로 볼때 新羅碑는 「太宗武烈王陵碑」에서 부터 始作하여 九世紀에 들어와 異型樣式을 세우고 다시 高麗에 傳授한다. 彫刻은 一〇世紀에 들어와 滿開하나 어디까지나 龜趺와 螭首에만 局限하고 그것이 全部였으나 麗初에 와서는 아직까지 쓸모없이 素地로 남아 있던 碑身測面에 餘白를 두지 않고 彫刻으로 가득 채운 碑가 나타난다. 이와같이 彫刻이나 文樣으로 作品 全面을 가득 채워 豪華로운 修飾을 爲主로 하는 것은 樣式變遷過程에서 末期의 現狀으로 나타나지만 麗初에 와서 忽然히 나타난 碑身側面의 雙龍高彫를 看過해 버릴수 없을 것이다. 筆者는 京畿道安城郡二竹面七長里에 있는 慧炤國師碑를 調査①하면서 이 樣式을 發見하고 既往에 알려진 玄化寺碑②와 智光國師碑③에서의 이같은 樣式과 關聯을 지어 생각하게 되었고 이 樣式의 出沒에 注目하게 되었다. 文樣으로서 龍은 三國時代부터 記錄에 보이기 始作하며 遺蹟遺物도 遺存한다. 龍文은 大개 雲文을 同伴하며 螭首나 浮屠에서도 반드시 雲文과 함께 나타나고 本稿에서 考察하려는 碑身側面에도 雲龍으로 나타나 어디까지나 龍이 主가 되고 雲文은 附屬文樣에 지나지 않으며 또 彫刻上으로도 別로 問題視할만한 價値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雲文은 略하고 龍을 主로 하여 다루기로 한다. 本考에서는 이새로운 樣式이 나타나는데 對한 理由를 살피고 또 이 樣式이 六四年이란 短期間만 存續

하고 더 以上 高麗社會에서 繼續되지 않게된 原因은 推定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考察은 當代에 있어서의 大陸의 影響이나 또는 高麗內에 있어서도 龍彫刻의 他例 卽 螭首나 浮屠等의 樣式을 서로 比較하는 것이며 具體的인 史實을 發見하지는 못하였다. 이 樣式에 關하여는 關野貞博士가 그의 「朝鮮의 建築と 藝術」에서 玄化寺碑를 說明하는 가운데 「左右碑側에는 極히 雄豪한 昇降龍을 高肉彫하였다」라고 하고 또 「朝鮮의 美術工藝」(「東洋史講座」所收)에서도 「新羅時代의 傳統的 手法을 脱却한 新機軸을 成」云云한 일이 있다. 그리고 最近 「文化財大觀」의 「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碑」와 「七長寺慧炤國師碑」解說에서도 簡略하게 記錄한 일이 있다.

## 二、碑身側面 雙龍高彫 樣式的 發生

### 1、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

碑身側面に 彫刻하는 樣式은 中國에서는 唐代에 이미 發生하여 宋代에 까지 繼承되고 있다. 卽 「唐太宗乾陵無字碑」의 雲龍文, 「少林寺太宗御書碑」와 「大智禪師碑」의 寶相花文, 「唐英國公李勣碑」와 「李靖碑」의 雲氣文 등이 그것이다. 新羅에서는 末期에 이르러 비로서 出現하는데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⑤의 兩側面에 雲龍文을 彫刻하여 처음 나타나는데 이것은 現存 碑中 最古이며 唯一한 新羅碑이다. 그러나 新羅碑가 太宗武烈王陵碑以來 唐碑樣式을 充分히 模倣하였을 것으로 짐작되며 또 新羅碑의 傳統樣式이 麗初까지 繼續되는 點으로 미루어 보아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以前에도 唐碑式의 그러한 樣式이 存在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는 新羅景明王八年 西紀九二四年에 建立⑥되었고 碑身高一·八三M 同幅一·〇一M 同厚二三cm이다. 材料는 花崗石을 使用하였으며 彫刻은 이 碑身 兩側面에 있는데 雲龍文을 全面에 滿刻하였으나 麗初의 三碑(玄化寺碑, 慧炤國師碑, 智光國師碑)와는 달리 淺刻으로 決코 高彫라고는 할 수 없다. 文樣配置에 있어서도 各面에 各龍 한마리씩을 上部로부터 下端까지 整置하고 頭는

開口하여 上向 昇天狀을 나타 냈으며 그 外를 雲文으로 채웠다. 이 碑에서 볼때 ① 周緣을 設置하지 않고 ② 龍이 한마리이고 珠가 없는點 ③ 材料에 있어서 高彫細刻이 困難한 花崗石을 傳統式대로 쓰고 있다는點 등은 麗初三碑에 比하여 古樣式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年代的으로 約一世紀後에 出現하는 三碑의 始源樣式으로 볼수 있다.

### 2、宋碑의 影響

前述한마와 같이 唐代에서 發生한 이 樣式은 아무런 發展的인 變化없이 宋初까지 踏襲 되는데 宋太祖 開寶六年(西紀九七三年)에 成立된 河南登封中嶽廟의 「太宗新修嵩嶽中天王廟碑」와 宋眞宗 大中祥符六年(西紀一〇一三年)에 建設된 山東泰安東嶽廟의 「太宋東嶽天齊仁聖帝碑」가 있다. 前者는 碑身側面에 寶相花와 五仙童奏樂歌舞의 狀을 優麗하게 彫刻하였고, 後者는 宋碑中 最大의 것으로 參考로 그 規模를 여기에 옮기면 龜趺廣 七尺四寸 同長 一三尺 同高 三尺三寸 碑身高 一·二五尺 同廣 七尺一寸三分 同厚 二尺二寸이며 碑座의 側面에 牡丹唐草의 彫緣을 둘르고 그안에 雲龍文을 刻出하였다⑦. 이들 宋代二碑의 樣式이 麗初의 玄化寺碑出現에 直接的인 契機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바 그 理由로 ①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以後 近一世紀의 間隙이 있고 ② 宋의 河南碑가 鳳林寺碑 보다 近半世紀後에 成立되었다는點 ③ 當時 麗宋과의 關係로서 光宗一三年(西年九六二年)부터 政治的 文化的 關係가 密接하게 되어 使臣·留學生·商人의 往來가 빈번하였다는點 또 北方의 新興契丹의 武力的 壓迫은 더욱기 麗·宋兩國의 精神的 紐帶를 더욱 鞏固히 하였다는點⑧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卽 新羅內에는 唐代의 樣式을 輸入하여 成立한 新羅樣式이 存在하였을 것이며 鳳林寺碑는 그 後身으로서 繼承되었을 것이고 그以後 이 樣式을 忘却하였다가 宋의 河南碑와 山東碑의 影響으로 玄化寺碑의 樣式이 새로운 形象으로 再發生되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 3、螭首浮屠와의 關係

그러나 이 碑身側面彫刻은 宋代碑의 刺戟으로 雙龍高彫의 樣式으로 變化(發展)再生되었다 하더라도 彫刻手法技術은 그 性質上 外國에서의

直輸入이困難하였을 것이며 同一地域內의 傳統의인 手法에서 보다 強하게 相互作用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이러한 點을 筆者는 碑의 螭首와 浮屠의 雲龍彫刻에서 찾고자 한다. ① 첫째로 螭首에 龍을 彫刻하는 樣式은 「太宗武烈王陵碑」에서 나타나기 始作하여 羅代에서 繼續存在하나 盛行은 九世紀 中葉으로 推定되는 「實相寺證覺大師凝冢塔碑」로부터 始作하여 雙龍高彫樣式의 存在期까지 續出하여 國寶나 寶物指定된 優秀作品만도 二一點이나 된다<sup>⑨</sup>. 이런 作品을 製作하는 동안 그 手法은 繼續發展하였을 것이며 特히 龍은 高彫로서 碑身의 그것과 形狀에 있어 거의 同一한으로 그 熟鍊된 手法은 바로 傳移될 수 있었을 것이다. 事實에 있어서 羅末의 螭首에 彫刻된 龍의 狀象은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의 碑身に 있는 龍보다 훨씬 玄化寺碑의 雙龍과 恰似하다. 또 具體的인 一例를 慧昭國師碑에서 들면 螭首의 龍彫刻은 碑身側面의 高彫와 거의 同一한 手法이다. 이는 同時에 建立된 一個의 造形物이므로 特記할 일이 못되나 이로 미루어 보아 앞에 든 事實과 함께 他碑의 相互作用關係를 充分히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다음 浮屠(石燈一基包含)의 龍彫刻에서 살펴 본다면 螭首에서와 같이 長期間 傳來되어 오지는 않았으나 一〇世紀로 推定되는 「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에서 부터 初出하여 碑身側面의 雙龍高彫期까지 約二世紀 동안 流行하다가 살아지게 되는데 이 期間에 造成된 國寶寶物級 作品만도 一四點에 達하여 그 盛行程度를 可히 짐작케 한다. 浮屠에 나타나는 龍彫刻은 螭首에서 처럼 纖細하고 寫實的인진 못하나 龍頭의 表現이나 魚鱗等 細部에서 亦是 同樣임을 나타내고 있어 相互關係를 推測하게 한다. 더우기 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에서 雲文이나 龍身部의 淺刻은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의 碑身 兩側面의 雲龍彫刻과 거의 同一한 手法을 보이고 있다.

### 三、麗初 碑身側面의 雙龍高彫樣式

#### 1、玄化寺碑

京畿道開豐郡嶺南面玄化里玄化洞 冥鷲山下玄化寺址 故地に 남아 있는

玄化寺碑는 同寺의 創建始末을 記錄한 事蹟碑로서 高麗顯宗 一二年(西紀一〇二一年)에 樹碑<sup>⑩</sup>하였고 그 規模는 碑身高二·三八M 同幅一·三M로서 黑大理石을 材料로 使用하였다<sup>⑪</sup>. 雙龍彫刻이 있는 碑身側面에는 周緣에 二·三cm 가량 幅의 平面을 만들어 全周 上下左右에 돌리고 다시 平面內에 二條의 線刻이 있다. 이 周緣內 中央部에는 雲文이 滿刻되고 그 上下에 各 한마리씩의 龍을 配置하였는데 龍頭는 開口한체 中心을 向하여 서로 對面하고 碑表쪽으로 두었다. 龍體는 圓熟한 彫刻으로 生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屈曲을 이루어 上下의 各 14地點에서는 蟠結의 形狀이 되었고 全體적으로 昇降龍狀이다. 그리고 龍體와 周緣間의 空間에는 雲文을 채워서 全面에 빈틈없이 彫刻하였다. 이 點은 他 二碑에서도 同樣이다<sup>⑫</sup>. 이 玄化寺碑는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와 樣式에서 큰 變化를 보이고 있으니 ①로 黑大理石을 使用하고 있다는 點이고 ② 文樣이 번다하여 龍이 두마리가 되고 周緣이 設定되고 ③ 이러한 點들이 質朴未熟에서 불과 一世紀間에 彫刻上으로 거의 完成의 境地에 이르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 2、慧昭國師碑

慧昭國師碑는 그 碑文 末尾에 依하면 高麗文宗一四年(契丹清寧六年)西紀一〇六〇년에 立碑하였으되 總高四·九六m 碑身長一·四八m 同幅一·二八m 碑身側面幅一·二cm의 規模이다. 材料로는 龜趺와 螭首는 花崗石을 碑身은 黑大理石을 使用하였다. 雙龍은 이 碑身兩側面에 高彫하였는데 周緣에는 玄化寺碑와 같이 二cm씩 上下左右에 平面을 남겨 長方形區域을 設置하였으나 玄化寺碑에서 보이는 二條의 線刻은 略하고 있다. 周緣內區의 中心에 珠一球를 置하고 珠圍는 火焰文을, 다시 그 주위에 雲文을 彫刻하였다. 中心에 珠를 두는 것은 玄化寺碑에는 없던 것이 세로 나 타난 것이다. 그리고 珠上下에 玄化寺碑에서와 같이 各 한마리씩의 龍을 配置하였는데 龍은 앞발로 부터 始作하여 龍體를 比較的單調하고 直線的으로 길게 뉘어서 마치 死體를 聯想케 하며 龍頭는 亦是 開口한체 向珠하여 서로 對角線에 놓여 있다. 이 點은 玄化寺碑에서의 서로 對稱의인 點과 相異하다. 四足의 配置도 玄化寺碑와 같이 前後各

一足씩體위로, 나머지 一足씩은體 아래로 들어 交叉되도록 하였다. 空間은 亦是雲文으로 채워 빈틈이 없다. 龍體는 周緣平面보다 2cm 高彫이나 平刻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3、智光國師玄妙塔碑

이碑는 江原道原城郡富論面法泉里 所在法泉寺址 北邊에 있는데 그碑文(5)에 依하면 高麗宣宗二年(契丹大安元年) 西紀一〇八五年에 建碑되었고 그 規模(6)는 總高約 四·五五m 碑身長 二·九七m 同幅 一·四二m로 材料는 前二碑와 같이 龜趺와 螭首는 化崗石 碑身은 黑大理石이다. 雙龍의 彫刻은 이碑身 兩側面에 있으며 그 周緣은 前二碑와 同樣으로 平面을 두르고 그 內區의 中心에 珠一球와 火焰文을 刻하고 그 주위에 雲文을 채웠다. 여기서서는 慧炤國師碑보다 珠가 작아지고 龍足과 좀더 距離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 上下에는 各各例의 龍을 高彫하였는데 그 形狀은 前二碑와 달리 龍頭는 珠와는 關係없이 上位의 龍은 上端에 位置하고 목을 反轉하여 멀리서 向珠하고 있어 爭珠하는 昇降狀을 나타내고 있다.

龍體도 各已 달라 上位것은 鈍短·單調·簡潔한데 比하여 下位것은 細長하고 複雜하게 되어 아마 雌雄을 表示한것 같다. 彫刻은 慧炤國師碑보다 越等하여 圓刻이고 모습도 生動氣韻이 감돌고 있다.

이들 三碑의 建立年代는 碑文들의 記錄으로서 玄化寺碑가 西紀一〇二一年으로 最古이고 以後三九년에 慧炤國師碑가 서서 그 다음이고 智光國師碑는 이보다 二五年後에야 나타나 上下間에 六四年의 間隙을 보이고 있다. 彫刻手法에 있어서는 最後出의 智光國師碑가 가장 優秀하고 다음이 玄化寺碑이나 祖型으로 後出二碑의 範本이 되었을 것이다. 特히 智光國師碑는 玄化寺碑와 너무 恰似하고 慧炤國師碑는 智光國師碑보다 二五年前出이기는 하나 文樣의 配置가 圖式的이고 圓刻의 地境에 아직 未達하고 있다.

이는 智光國師가 在世時에 慧炤國師보다는 玄化寺와 더 깊은 關聯을 맺고 있다는 點도 들수 있겠으나 이보다는 寺의 規模로서 法泉寺가 七長寺와는 比較가 안될 程度로 廣大하며 同時에 寺格도 地方으로서는

第一級이고 또 直近에 興法寺 居頓寺 高達寺等 當代의 大刹이 列立하고 있는데 比하여 七長寺는 窮僻한 山間에 孤立하고 있다. 이 立地의 程度는 七長寺에 高麗時代 歷代實錄을 暫時나마 保管하고 있었다는 點으로도 알 수 있으니 이 立地條件이 보다 더 큰 理由가 될 것이며 兩國師의 王室에 對한 地位도 看過할 수는 없을 것이다.

### 四、碑身側面 雙龍高彫의 消滅

이러한 三碑의 碑身側面에 雙龍을 高彫하는 樣式은 麗初에서 六四年 間만 存在하고 「智光國師玄妙塔碑」를 最後로 後無하게 되었는데 그原因을 다음과 같은 事實에 두고자 한다. ① 첫째로 이 樣式的 發生에 直接的으로 影響을 준 大陸의 樣式變化이니 卽 宋의 太宗太平興國八年(西紀九八三年)에 建設된 山東曲阜文廟의 「大宋重修兗州文宣王廟碑」(9)에서 碑身側面彫刻이 살아지기 始作하며 이 變化는 宋中期以後에 盛行하게 되고 뒤에 遼와 元에서 그대로 踏襲하게 된다. 大陸에서의 이와같은 變化는 直接的으로 高麗에 影響이 되어 「智光國師玄妙塔碑」以後 더 이상 만들지 않게 되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② 둘째로 螭首에서 龍彫刻이 살아졌다는 事實이다. 卽 羅代 9世紀 中葉부터 大流行을 본 螭首의 龍彫刻은 顯宗一七年(西紀一〇二六)에 建立된 「奉先弘慶寺碣」(10)을 最後로 (鎭川蓮谷里碑)이기는 하나 여기서서는 絕對年代가 있는 「奉先弘慶寺碣」을 例로 使用한다) 더 造成하지 않았다. 이 「奉先弘慶寺」後三五一年에 「檜岩寺禪覺王師碑」(11)의 螭首에 다시 나타나 李朝初期로 引繼되나 別個問題로 여기서서는 論外로 하고자 한다. 參考로 麗初에 造成된 碑로 螭首에 龍彫刻이 있는 碑만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②

- 1、普賢寺朗圓大師悟眞塔碑 一〇世紀中葉
- 2、菩提寺大鏡大師塔碑
- 3、眞空大師塔碑龜趺 및 螭首
- 4、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 5、無爲寺先覺大師遍光塔碑
- 6、大安寺廣慈大師碑

- 7、鳳岩寺靜眞大師圓悟塔碑
  - 8、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碑
  - 9、鷲谷寺玄覺禪師塔碑
  - 10、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碑
  - 11、居頓寺圓空國師勝妙塔碑
  - 12、奉先弘慶寺碣
  - 13、鎮川蓮谷里石碑
- 이와같은 螭首의 龍彫刻은 碑身側面의 雙龍高彫보다 훨씬 앞서 나타나 그手法은 雙龍高彫의 發生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나 消滅에 있어서는 手法보다는 樣式的으로 關係가 되었을 것이다. ③ 세째로 浮屠(石燈一基)에서 龍彫刻이 살아졌다다는 點이다. 前述한바와 같이 一〇世紀初에 發生하여 一世紀中「智光國師玄妙塔碑」보다 먼저 살아져서 發生에 있어 그手法으로 作用한것과 같이 이消滅에 있어서는 주로 樣式的인面에서 影響을 주었을 것이다. 參考로 一〇—一世紀에 造營된 浮屠(石燈一基包含)을 여기에 列記하면 다음과 같다.
- 1、禪林院址浮屠
  - 2、實相寺秀澈和尚楞伽寶月塔 一〇世紀推定
  - 3、鷲谷寺東浮屠 一〇世紀推定
  - 4、高達寺址浮屠
  - 5、興法寺眞鏡大師塔 一〇世紀
  - 6、鳳巖寺靜眞大師圓悟塔
  - 7、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
  - 8、沃溝鉢山里石燈 一〇世紀頃으로 推定
  - 9、普願寺法印國師寶乘塔 一〇世紀
  - 10、淨土寺弘法國師實相塔 一世紀初
  - 11、法泉寺智光國師玄妙塔 一世紀末
  - 12、甲寺浮屠 一世紀推定
  - 13、寶泉寺址浮屠 一世紀推定
  - 14、石造浮屠(慶北大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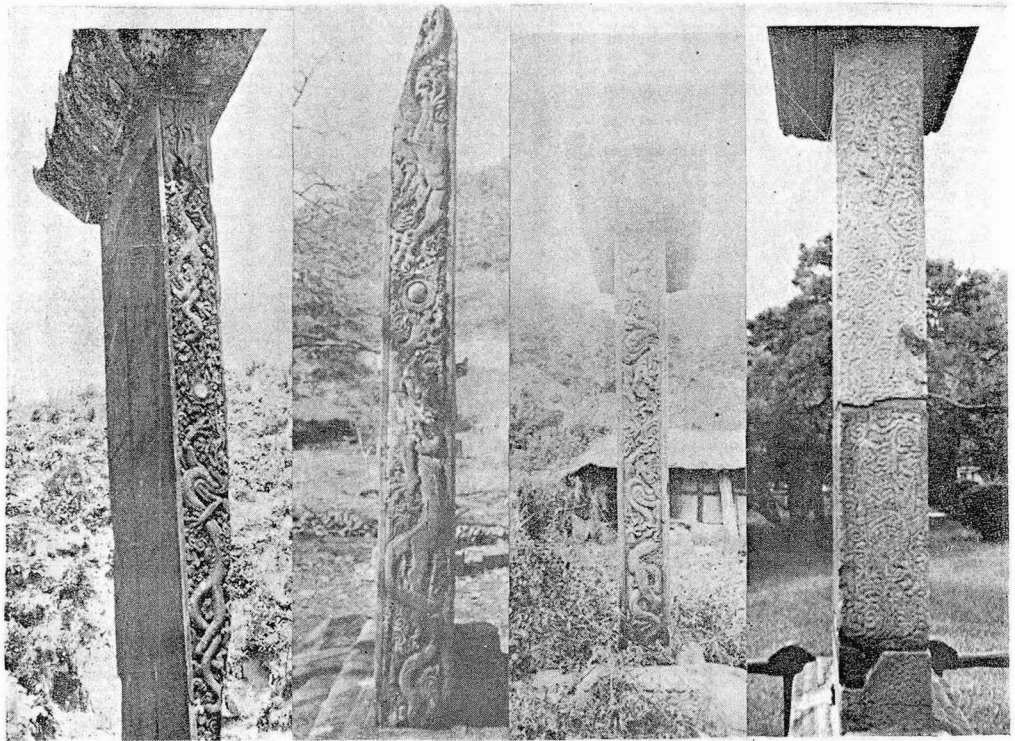


圖 4 : 法泉寺智光碑

圖 3 : 慧炤碑

圖 2 : 玄化寺碑

圖 1 : 鳳林寺眞鏡碑

浮屠(塔과 石燈包含)에 다시 龍彫刻이 出現하는 것은 李朝成宗三年(西紀一四七二年)에 建立된 것으로 보이는 神勒寺多層石塔<sup>24</sup>에서 볼 수 있으나 年代上의 差異나 社會가 다르기 때문에 論外로 하기로 한다.

④ 끝으로 高麗社會 그 自體內의 어떤 原因에도 理由가 있을 듯하다 卽 螭首와 浮屠에서 거의 同時에 龍彫刻이 살아지고 아울러 碑身側面에서도 살아졌다는 것은 彫刻의 手法이나 樣式上의 問題外로 社會的인 原因이 있을 것 같으나 그 具體的 事實을 밝힐 수 없는 것이 遺憾이다.

### 五、結 言

以上 보아온 것같이 麗初에 있어서 碑身側面에 雙龍을 高彫하는 樣式은 羅末의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에서 비롯하였으며 이 碑前에도 唐碑의 影響으로 存在하였을 듯 생각되나 現存하는 遺蹟이 없으므로 年代를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以上으로 올릴 수 없으며 이 碑로서 麗初三碑에서 본 樣式的 始源樣式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始源樣式에 다 宋代初의 樣식이 刺戟이 되어 비로서 玄化寺碑가 出現하고 이것은 後出의 慧炤國師碑와 智光國師碑의 祖型으로서 그 範本이 되었을 것이다. 이 樣式은 智光國師碑를 마지막으로 高麗國土에서 자취를 감추지만 強健質朴하던 碑가 차차 裝飾性이 너무 高調된 나머지 碑身側面에까지도 彫刻으로 가득 채워져 豪華를 極하고 以後 急激히 衰退하게 되었다. 碑身側面의 雙龍高彫樣式은 碑全體의 趣向으로 볼 때는 奢侈에만 耽溺되었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 雙龍高彫만을 볼 때는 彫刻史上 最高의 水準에 達하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智光國師碑는 그 絶頂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碑를 最後로 더 나타나지 않게 되는데 그 원인은 이 樣式이 發生할 때에 作用한 前記三가지 事實과 또 麗初의 社會的인 原因으로 因하여 거의 前後하여 살아지게 된 듯하다. 이 碑身側面의 雙龍高彫를 밝히면서 副收的으로 얻어진 것으로 ① 螭首에서 龍彫刻이 一世紀初에 살아졌다는 것과 ② 浮屠에서의 龍彫刻은 一〇世紀에 出現하여 一世紀初에 살아졌다는 것이다. 이 두事實은 各기 碑와 浮屠에 있어서 同樣을 갖는 作品의 編年推定에 한 資料가 될 것으로 믿는 바이다. 따

라서 이 두 重要한 龍彫刻의 所在에 關하여는 그 樣式을 綜合檢討할 機會를 따로 마련할까 한다.

註一、七長寺의 慧炤國師碑에 對하여는 일찌기 葛城末治氏가 碑文內容을 中心으로 그의 「朝鮮金石攷」에 紹介한 바 있고 또 一九六四年一月 申榮勳氏가 一次 調査하고 「考古美術」五卷一二號에 簡略히 報告한 바가 있다. 筆者는 裴吉基氏와 함께 一九六八年三月九일에 一次 調査하고 그 結果를 文化財管理局의 六八年度「指定申請文化財調査報告書」로서 文化財委員會에 提出한 바 있다.

- 二、關野貞「朝鮮의 建築と藝術」p.131 參照 昭和一三年 東京「朝鮮의 美術工藝」p.一五三。「東洋史講座」大正一五年 東京
- 三、文化財管理局刊「文化財大觀」國寶編 p.三四八、六八年 서울
- 四、關野貞「支那의 建築と藝術」p.一八三、昭和一三年 東京
- 五、現在 서울景福宮內에 所在 一九一九年八月三日 當時 朝鮮總督府에 依하여 元所在地 慶南昌原郡上南面鳳林里鳳林寺址에서 景福宮으로 移轉하였음.
- 六、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上卷 p.九七、大正八年
- 七、關野貞「支那의 建築と藝術」p.一九一
- 八、震檀學會「韓國史」中世編 p.三八五 參照
- 九、文化財大觀國寶編·實物編上條
- 一〇、前掲「朝鮮金石總覽」上卷 p.二四一
- 一一、前掲「朝鮮金石總覽」p.一七二
- 一二、朝鮮總督府「古蹟圖譜」圖版三〇八五參照
- 一三、前掲「朝鮮金石總覽」p.一七二
- 一四、前掲「朝鮮金石總覽」p.一七二
- 一五、前掲「朝鮮金石總覽」p.二八三
- 一六、前掲「文化財大觀」國寶編 p.一八二
- 一七、前掲「朝鮮金石總覽」二八三 碑文內容參照
- 一八、「高麗史」世家 恭讓王二年條
- 一九、新増東國輿地勝覽「卷一四忠州府 佛宇條
- 二〇、關野貞「支那의 建築と藝術」p.一九一參照
- 二一、前掲「朝鮮金石總覽」p.二六〇參照
- 二二、前掲「文化財大觀」實物編中 p.四六六
- 二三、國寶編 實物編上 同中參照
- 二四、實物編上 p.五